

노스님과 중국 교포 '아름다운 인연'

사고로 팔 못쓰는 청년 초청 아산병원 무료수술 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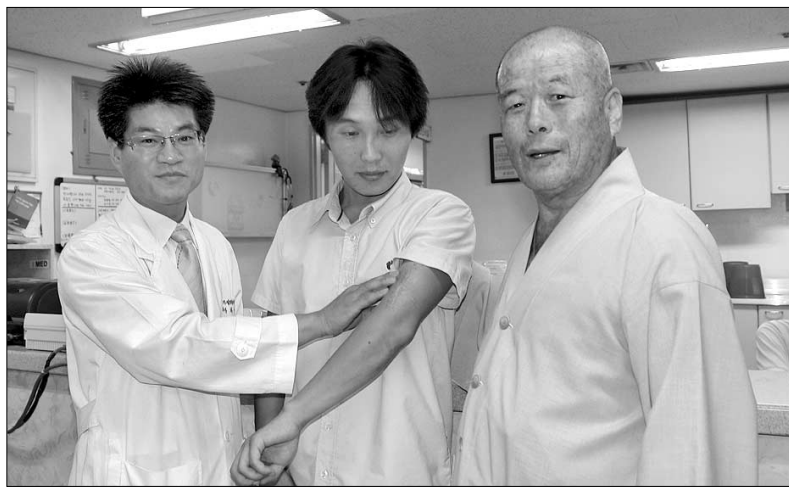
시골 노스님과 중국 연변 청년의 국경을 넘는 인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사고로 한쪽 팔을 쓰지 못하던 중국 교포 청년이 스님의 주선으로 8월 9일 국내 병원에서 무료수술을 받고 퇴원한 것.

화제의 주인공은 김제 행림사 주지 행림 스님과 중국 연길시에 사는 중국교포 최봉(32세). 최씨는 6년 전 중국에 진출한 한인업체에서 일하다 좌측 상완골절사고를 당해 팔 속에 금속핀을 박는 대수술을 받았다.

집까지 팔이 몇차례 수술을 했으나 수술결과가 좋지 않아 팔을 쓰지 못하고 앉을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행림 스님이 지난해 최씨를 국내로 초청했다. 치료해 주려는 생각에서.

그러나 호남평야의 허허벌판 위에 자리한 작은 사찰 행림사에서 최씨의 치료비를 준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행림 스님은 "지난해 할 수재가가 떨어져 신도들의 보시도 넉넉지 못하고, 금년 초파일에는 좀 나아지겠거니 했는데 그것마저 시원찮아 치료가 늦어졌다"고 웃



한 스님의 도움으로 한쪽 팔을 쓰지 못하던 중국교포 청년이 무료수술을 받아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 오른쪽부터 김제 행림사 주지 행림 스님, 최봉씨, 차진단 아산병원 가정의학과장.

어 보였다.

최씨 치료를 위해 여기저기 발품을 팔던 행림 스님은 정읍 아산병원(병원장 정을삼)을 찾게 됐다. 아산병원은 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세운 병원으로 정 회장의 유지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무료수술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었다.

병원 내 불자 의료진들도 발벗고 나섰고, 마침내 지난달 최씨의 무료수술이 이뤄졌다.

성공리에 수술을 마치고 현재 행림사에서 요양중인 최씨는 "팔이 아파 일자리도 구하지 못할 때는 삶을 포기하고 싶었다"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준 스님과 병원 측에 감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최씨의 무료 수술을 주선한 행림 스님은 "농촌이 희망이다"며 '양심살리기, 농어촌살리기, 희망살리기 운동본부'를 결성해 농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글·사진=이준엽 기자

'눈높이 맞춘 부처님' 선덕사, 35cm 높이 불단 마련



중생과 눈높이를 맞춘 부처님이 불안했다. 8월 22일 광주 선덕사(주지 행법) 작은 법당에 불안된 삼존불(사지)이 그려졌다. 이날 점안법회에서 첫 선을 보인 부처님은 선정, 평화, 바람(해탈)이란 이름의 삼존불로 35cm 높이의 불단에 모셔져있다. 법당 이름은 '침묵의 향연'으로 명명했다.

이 불단 높이는 법당이 앉았을 때 편하게 부처님과 눈을 마주하며 바라볼 수 있어 안정감을 준다. 이준엽 기자



무안 회산백련지에서 불교계가 주관하는 백련불교문화축제가 열렸다(사진). (사)백련불교문화원(원장 경환)이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최한 이번 축제는 태고종, 범종, 선각종 등 종단별로 행사를 맡아 운영했다. 축제기간동안 회산백련지에서는 10만여명 밝히기, 불교문화관람차, 팔관대, 다도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이준엽 기자

청원 석문사 9월 6일 경로잔치

청원 석문사 자비원(주지 혜진)이 지역민과 함께 하는 사찰로 거듭나기 위해 청원군 남이면 관내 어르신 100여명을 초청해 '청원군민과 함께하는 경로잔치'를 연다. 9월 6일 오전 10시 남이면 면사무소 광장에서 열리는 경로잔치는 지난해에 두 번째 열리는 행사로, 난타 공연과 사물놀이 및 가요 공연, 어르신 노래자랑 등 출연자와 참석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혜진 대전 충북지사장

광주 불교 방송
BBS FM 89.7 MHz
www.kjbbbs.co.kr

지상중계 - 원각사 재가논강

'재가불자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 ② 인욕바라밀

호남 최초로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에서 열리는 재가논강이 회가 거듭될 수록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두 번째 논강이 8월 18일 '인욕 바라밀'을 주제로 200여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논주로 나선 이순규(사진) 서남대 의대 정신과 교수는 "인욕 바라밀은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고, 화내고 성내는 마음조차 참을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인욕의 완성"이라고 규정했다.

인욕(忍辱)은 사전에서 '마음을 가라앉혀 온갖 욕됨과 번뇌를 참고 원한을 일으키지 않는 일', '괴로움을 만나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진리를 깨달아 인정하고, 마음을 편히 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순규 교수는 '인욕의 완성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할아버지와 손자를 비유로 들었다.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수업을 함부로 잡아당길 때 할아버지는 화나는 것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어-허'하며 측은심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대한다.

말게 하겠소"하니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던 여인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남에게 돈을 빌려주려면 심사숙고 한 뒤에 줘야지 그냥 주고서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오"하니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자기 당했다기보다 돈을 준 자신이 잘못이라는 것을 안 순간 병은 사라진 것이다.



"현재 있는 그대로 보면 참을 필요조차 없어져"

그렇지만 이 교수는 "성인(聖人)도 아프고, 괴로움을 그대로 느낀다"며 "보통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성인은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행은 인위적으로 흉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에서 나오는 것으로 현재 있는 그대로(御今當處, Here and Now)를 보고 아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아는 것은 정신과에서 매우 중요하며, 임상 치료에서 자주 활용하고 있다"며 사례를 들었다.

외아들만 바라보며 사는 어머니가 있었다. 어려운 생활 속에 학교 입학금을 모았으나 동네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 돈을 잃은 순간부터 '내 돈, 내 돈'하며 돈만 찾았다.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2개월이 지난 후였다. 돈을 찾아주는 것만이 치료인 듯했다. 첫 만남에서 '여기에 돈이 있다면 어

◆질의 응답

▲현대인에게 최대의 적은 스트레스다.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 스트레스는 해롭지 않다. 적당한 자극과 스트레스는 삶에 활력을 준다. 스트레스는 피한다

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스트레스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바세계의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집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면 스트레스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열등감, 강박관념 등 콤플렉스가 생기면 스스로 화를 낸다.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 콤플렉스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해결됐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된다. 어려서 살을 도려낸 나무는 커가면서 상처도 커지기 마련이다. 어려서 받은 상처가 없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 아한다. 그랬을 때 '남의 탓'으로 살던 삶이 '내 탓'으로 바뀐다. 콤플렉스를 친구삼아 사랑하며 아름답게 살도록 한 생각 돌려보라.

정리=이준엽 기자

다음주 재가논강- '선정'
일시: 9월 1일 오후 7시
논주: 박건수 교수 (연남대 종교문제연구소)
장소: 광주 원각사 법당 (062-223-3168)

법주사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식

9월 12일, 수계·10만등 점등식

법주사(주지 도광)가 대웅보전에 모셔진 소조삼존불상 개금 및 봉안 불사를 마치고 9월 12일 '대웅보전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대법회'를 봉행한다. 국내 최대의 소조삼존불상인 법주사 소조삼존불상은 임진왜란 이후의 불상 조형상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보물 제1360호로 지정돼 있다.

회향대법회는 오전 10시 30분 정안의를 시작으로 법회와 오후 1시 30분 열리는 '개금 및 봉안 불사 기념 보살계 수계식'의 순서로 진행된다.

수계식에서는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을 계사로 2000여명이 계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7시에는 개금불사를 축하하는 10만등 점등식도 진행된다.

도광 스님은 "4개월에 걸친 개금불사와 봉안불사가 무사히 끝난 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수계법회와 10만등 점등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개금불사는 단순히 금을 입히는 작업이 아닌, 부처님을 새롭게 장엄함으로써 지극한 예경을 표하고 불보살

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개금불사의 의미를 밝혔다.

해철 대전 충북지사장

빛고을 자비나눔 봉사단 22명 강원도 수해지역서 복구 활동



(사)자비나눔회(이사장 현창)는 8월 18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일대에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활동을 펼쳤다.

이날 자비나눔회는 중심사, 광주전남교 사찰자회와 함께 자비나눔 봉사단(단장 정용운)을 긴급 편성해 단원 22명을 강원도 수해현장으로 파견했다(사진).

진부면사무소를 방문한 자비나눔 봉사단은 수해지역민에게 수해성금 411만원과 수

해물품을 전달했다. 수해민을 위한 성품은 이불 55채, 의류 13박스, 생필품 8박스 등 증심사(주지 진화)가 마련했다. 진부면 신기리 수해현장에서 수해민들과 함께 900여명의 비닐하우스 정리작업도 벌였다. 이준엽 기자

영동소방서, 절에 소방차 기증

충북 영동의 반야사에 소방차가 생겼다. 영동소방서가 사용하던 소방차를 8월 23일 반야사에 기증한 것. 반야사 소방차는 1991년식 소방펌프차로 1350ℓ의 물을 저장하여 화재진압을 할 수 있다.

기증식에서 반야사와 영동소방서는 지역 사찰 등의 화재시 초기대응을 위해 상호 노력하자는 협약을 체결했다. 또 반야사 대중에게 소방차량 조작법 교육, 방수 훈련 등 화재진압 훈련도 실시했다.

반야사 주지 성제 스님은 "소방차가 생겨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혜철 대전 충북지사장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043)732-5560
충남동부지구: (010)3069-3170

공생선원 개원 4주년 기념 혜거큰스님 초청법회 / 9월 개강 안내

- 개원 4주년 개원법회
 - 제목: "경(經)과 선(禪)의 둘 아난 수행"
 - 일시: 2006년 9월 10일 (일) 오전 10시 30분, 공생선원 4주년 개원법회
 -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은 불기 2550년 9월 10일에 개원 4주년을 맞아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큰스님을 모시고 특별초청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 교육내용

강좌명 (개강일자)	요일	강사	강좌 소개 (강의 시간: 오전 10시 30분 // 저녁 7시 30분)
경전반 (9월 5일)	화	주지스님	유마경의 불이(不二)사상을 통해 중도(中道)를 배우며 재가불자들에게 인생의 본래면목을 밝히는 가르침
입문반 (9월 6일)	수	주지스님 및 초청법사	불교 기초교리 이해를 돕고 참선을 통해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직각하여 밝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가르침
참선반 (9월 7일)	목	주지스님	조사어록을 배우며 당선을 통해 공부를 점검하면서 스스로 추구하는 단계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에서 (경전반), (입문반), (참선반) 교육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2000년 6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조계사에서 포교국장, 재무국장, 참선반 지도법사 등을 역임했다. 조계사 신도들의 참선 수행 대중화를 이끌며 2002년 3월 사찰 내에 선방 (수행원)을 마련하여 참선문화를 정착시켰다.

공생선원 오시는 길: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층 T. 02)900-2448 F. 02)900-0476 http://www.gongseng.org e-mail: sunone@gongseng.org

3년과정(정규반, 통신반) 불교한문학과

1. 교과목

교과목	· 초발심자경론 · 육조단경 · 한학연구입문 · 한자학원론 · 이순으로 푸는 한문해석 · 설문해자 · 중국고전① · 중국고전② · 한국고전① · 불교경전① · 불교경전②
지도	· 심재동교수(동국대) · 심경호교수(고려대)

2. 개강일시 9월 7일(목) 오후 7시

3년과정 불교다도학과

1. 교과목

과정	요일	과목	지도교수
3년과정(포교사)	9월 5일(개강) 매주(화) 오후 2시	중국차문화사, 한국차문화사 일반차문화사, 유림차문화사 제다학, 심경, 육법원공다해 저수행법, 불교학개론	박희준교수 선혜스님 박전영교수 지운스님
2년과정(법사)	9월 12일(개강) 매주(화) 오후 4시	다선, 다경, 다부, 대관다론	해성스님 정우교수

2. 개강일시 9월 5(화) 오후 2시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 의식교육원**
본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2년과정 불교범패반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 범패 - 전통 제의식(49채, 천도재, 제반의식) (시련, 대령, 관육, 사시)
- 작법무 - 바라춤
- 착복무 - 나비춤
- 법고무

2. 개강일시 9월 8일(금) 오후 3시

2년과정 장례지도사 양성 불교장례문화학과

1. 교과목

과정	과목
1년	· 장례학개론 · 장례예민속학/역사 · 종교와 불교 · 장사법위주 · 심습
2년	· 공중보전학 · 장례식장경영론 · 불교경도학 · 생활과 풍수 · 심습
지도	· 김미혜교수

2. 개강일시 9월 5일(화) 오후 7시
*특전: 2년과정 수료후 불교장례지도사 수여